

예술가와 차 한 잔



“끝까지 가는 작가로 남고 싶어요”

장미란 작가

“공모를 냈는데 두 곳에서 모두 선정돼 영광입니다. 불상을 소재로 수목의 겹침을 통해 추상적이지만 안에서 밖으로 기운을 내보낸다는 뜻을 담아 ‘생동’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꽃의 겹침과 불상의 번짐은 생명의 울림이자 내 자신과 관람객이 원하는 염원이기도 합니다.”

로터스갤러리·유스퀘어 청년작가 선정 동시전시 수목의 겹침으로 표현된 불상·자연 ‘생동’ 시리즈 중국서 작업활동 “중국에 광주미술 알리고 싶어”

올해는 장미란 작가에게 특별한 해다. 작가는 무각사 로터스갤러리 청년작가에게 도전했다 떨어진 경험이 있었다.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낸 공모에 올해 선정됐다. 지난해에는 금호갤러리 유·스퀘어 청년작가 공모에 선정됐는데, 8일부터 14일까지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갤러리 3관에서 개인전을 연다. 로터스갤러리 청년작가 첫번째 전시로 지난 2일부터 20일까지 전시를 열고 있는 작가의 작품을 두 곳에서 다양하게 감상할 수 있게 된 것. 여기에 작가는 오는 12일부터는 시립미술관 본관에서 열리는 ‘2016-2017북경미술주’ 전 참여작가로 또다시 작품을 걸게 됐다. 6월 한달간 광주 주요 전시장 3곳에서 작가의 작품이 걸린다.

활동에 매진 중이다.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길고, 작가로서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 좋다고 한다.

“광주 작가들에게 기회가 없다는 말이 많이 들어왔어요. 전시 오픈식에도 작가들만 참여하는 경우가 많고, 청년작가에 대한 관심도 적은 것 같구요.”

작가는 하반기 상하이 류현사허 예술원에서 초대 개인전도 예정돼 있다. 중국에서만 3번째 전시다.

“올해 여러모로 출발이 좋은 것 같아요. 외국 작가로 중국 내에서 개인전 초대도 영광이지만 중국에 광주미술을 알리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푸른 색조의 수목으로 표현된 불상과 자연은 중첩·번짐 효과로 몽환적 분위기를 선사한다. 불상은 형태는 갖췄지만 디테일하게 묘사하지 않아 추상적이다.

“남들과 다른 작업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추상적 형태를 통해 상상력을 발휘하게 하고 싶었구요.”

자연과 불상을 주제로 수목작업을 하는 작가는 자연을 벗삼아 사색하고 관찰하며 마음 속 복잡함을 정리하곤 한다고



말했다.

파란색을 보면 마음이 평온해져 파란색의 단색 색조를 썼지만 앞으로 부채와 자연물 작업을 계속하며 다른 색을 섞어

나갈 예정이란다.

“열심히 꾸준히 작품활동을 펼쳐 끝까지 가는 작가로 남고 싶어요. 그림이 제 업이죠.” /이연수 기자



김성후 교수의 자동차로 유럽여행

<18> 노르드컵·스톡홀름

유럽인들에게 지구의 끝이라는 대륙의 북단 노르드갑까지 밤낮 주행하며 서둘렀던 강행군은 귀환시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새벽 2시반 어스름 농무 속에 도착했고 일단 피곤에 지쳐 차 속에서 잠이 들었는데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도 노르드컵 주변은 짙은 해무 속에 정적이 감돌았다.

지구를 형상화한 철제 조형물이 설치된 공간은 아직 개방하지 않았고 각종 안내와 구경거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느라 여행자안내센터를 겸하는 노르드컵 홀도 문을 열지 않아 급히 떠나야 했다. 청명한 날 노르드갑의 307m나 되는 해안절벽에 서면 북극해가 바라다 보이고 저녁이 되면 태양이 극북으로 돌아 동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말 그대로 해가 종일 떠있는 백야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호에서 노르드갑의 좌표를 잘못 제시했다. 이곳은 북극권인 66° 33' 보다 훨씬 고위도로서 71° 10' 21" 가 된다. 북극점까지 직선거리로 2,100km밖에 되지 않는다. 코펜하겐에 이곳까지의 내비게이션 거리 2,500km보다 짧은 셈이다.

실제로 노르드갑은 대륙의 극점은 아니고 마케뢰위섬에 위치한다. 그것도 정확히 극북은 아니고 9km 떨어진 곳에 71° 11' 8" 로서 극북이 된다. 아프리카 희망봉에 갔을 때 희망봉이 가장 극남에 위치하지 않음을 발견했던 것과 같은 이치이다.

하여간 노르드갑에서 극북까지는 자동차로는 안 되고 도보로는 갈 수 있는가 보다. 섬에 진입하는 길은 지금은 카페리를 이용하지 않고 해저터널을 이용한다.

황금히 노르드갑을 떠난 우리는 핀란드와 스웨덴 국경지대를 따라 중단을 하는 고속도로를 줄곧 남하하여

북단의 땅 노르드컵·노벨과 물의 도시 스톡홀름



노벨박물관 앞 광장.

양극간의 국경이 바다로 갈라지는 보트니아만까지 달렸다. 국경지대를 주행하니 양국을 수시로 들락거렸다. 그래서 이곳은 어느 나라냐고 친절함 점원에게 묻기도 할 만큼 그 곳은 국경개념이 없었다.

그곳에서 살아가는 양국 시민들은 목가적이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일상을 즐기고 있었다. 북유럽의 풍요와 여유, 낭만과 평화가 바로 이것이었나 보다.

모든 것이 느긋하고 여유로운 핀란드에도 약작같은 존재가 딱 하나 있었다. 핀란드 북쪽 국경지대에서 점심을 길가 벤치에서 먹고자 차문을 나섰는데 모기떼가 그렇게 극성스러운 수가 없었다. 그곳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은 얼굴에 방충망을 썼는데 보호구가 없는 우리들은 때로 몰려드는 모기를 피할 길이 없었다. 하느수 없이 큰 통에 담긴 노르웨이 빙하수를 작은 페트병에 옮겨 부은 후 차내로 피신했다. 물을 따르는 잠깐 사이에도 모기에게 몇 군데를 공격당했다. 북극권의 수목은 여름철 모기떼로 인해 체중의 1/3을 잃는다는 탐사채널의 설명이 실감났다.

땅갈이라고 불리는 노르드갑부터 꼬박 하루를 강행군하여 드디어 사람들이 모여 사는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 도착하니 우선 안도감이 들었다. 바이킹의

후손들이 오늘날에 이르러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를 이루었지만 그들은 원래 야만족인 바이킹의 후예들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지 도시를 활보하는 세련된 여성들이 남달라 보였다. 패션에 대해 좀 아는 일행은 이 도시의 여성들이 최고로 옷을 잘 입는다고 평가를 내렸다. 그리고 보니 나름대로 모두들 미적 개성이 넘쳐 보였다.

중국의 소주를 동양의 베네치아라고 불리는 것처럼 스톡홀름은 14개의 섬과 운하로 이루어져 있어 ‘북유럽의 베네치아’로 불릴 만큼 물의 도시이다. 이런 물길은 도시구조를 복잡하고 만들고 많은 다리를 필요로 했다. 북유럽의 풍요로운 국가의 수도이니만큼 여러 박물관과 미술관을 자랑한다.

그러나 뭉뚱뚱해도 스웨덴은 노벨의 나라이다. 전세계인 모두가 노벨상을 개인은 물론, 가문과 국가의 영예로 여기지 않은가. 그래서 노벨박물관이 구시가지내에 자리 잡고 있고 그 앞 광장에 늦은 밤 어둠이 내리도록 인파가 끊이지 않는다. 노벨상 시상식은 콘서트홀에서 열리지만 매년 12월 축하연회 행사는 시청사 황금의 방(Golden Hall)에서 거행된다. 황금방이니 1,900만개의 금박 모자이크가 그 화려함을 뽐내고 시청건물의 첨탑은 꼭 교회처럼 보이지만 어느 건물보다 높은 106m로서 특 트인 전망을 자랑한다.

스웨덴은 현 국왕의 왕궁이 시내에 일반 건물과 뒤섞여 있다. 다만 왕궁 앞에 아담한 광장이 있을 뿐이다. 그레도 근위대의 교대식은 성대하여 발디딜 틈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오후 늦게 약속으로 거행된 간단한 맛만 보았다.

이곳의 맛기행은 미트볼이라는 동그렇게 다진 쇠고기의 찜인데 우리는 갈 같이 비웠다. 이곳의 지하철도 세계에서 가장 긴 아트 갤러리를 자랑하고 있고 역대 예술작품을 자랑한다는데 아쉬웠다. 평양의 고심도 지하철도 스페인 기술지원을 받았다는 소문도 연상이 되었다.

/동신대 교수·호텔관광학과



강산제 심청가 세번째 완창 도전

박춘맹 명창 오늘 빛고을국악전수관서

소리의 고장 보성 출신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심청가 이수자인 박춘맹 명창이 8일 오후 2시부터 광주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에서 강산제 심청가 완창에 도전한다. 심청가로는 세번째 완창 도전이다. <관련 인터뷰 19면>

판소리 다섯 바탕 중에서도 심청가는 부부의 사별과 어린 딸의 희생, 그로 인한 부녀의 생이별과 죽음이라는 가장 애절한 정서를 바탕에 두고 있기에 비장하기 이를 데 없다.

심청의 어머니인 곡씨부인 죽는 대목, 집에 돌아와 우는 아이를 달래는 대목, 팔러가는 날 새벽의 이별 장면, 심봉사의 자탄 장면 등은 창자와 관객의 감정을 끌고 들어간다.

중간 줄거이없는 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40분동안 이어지는 심청가 완창 무대는 소리꾼으로서 많은 내용과 공부가 필요한 도전이다.

지난 2010년 심청가 완창무대를 가졌던 박 명창은 8년만의 이번 무대를 위해 벽을 보고 앉아 홀로 복을 치며 소리를 하

는 맹연습을 매일 5시간씩 이어왔다고 한다.

“8년 전과 비교해 소리의 공력과 성음 등이 달라져 목소리 자체가 틀려졌다”고 말하는 박 명창은 어느덧 남자 판소리꾼의 전성기라는 50대 후반을 맞았다.

의삼촌인 고 강형주 명창의 권유로 소리를 시작해 임방울국악제 1회 대통령상에 이어 2006년 다시 한 번 대통령상 수상 영예를 안았던 그가 소리길에 들어선 지도 어언 39년째다.

그의 스승인 국장 조상현은 “박춘맹은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손꼽을 만큼 보성소리의 정통을 잘 지키고 있으며, 연기와 기교, 감정 표현에 있어 특출한 재능을 겸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무대에는 고수 임영일과 장보영이 완창무대를 돕고, 정주희, 박정희, 전지혜, 임서연, 유민희, 김다희 씨 등이 출연해 남도민요 ‘사철가’와 ‘진도아리랑’을 곁들인다. 장고 정인성, 아쟁 류세운, 대금 임황철 씨도 함께 한다. /이연수 기자



KOSPI 상장기업 동아에스텍의 새 이름 DASCO! 세라믹 전문기업 동아세라믹의 새 이름 세라코!



태양광발전소 사업 관련 모집

- 1. 태양광발전소 사업주 모집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매매하고 싶으신 분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설비투자금이 없으신 분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임대하였으나 설비투자금이 없으신 분
2. 태양광발전소 영업대리인 모집
태양광발전소 부지 섭외가 가능하신 분
태양광발전소 사업주로부터 시공을 위탁 받으신 분
대표 EPC화가 필요하신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3. 태양광 영업 인재 모집
태양광 EPC영업 유경험자
태양광 구조물 영업 유경험자
태양광 개발사업 유경험자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핵심 인재를 모집합니다!

Table with 4 columns: Department, Position, Qualifications, and Location. Rows include DASCO and Seraeco departments with roles like Strategy Planning, Sales, and R&D.

*접수문의: 담당자 061370-2137, recruit@dasco.kr, 접수기한: ~ 채용시까지

ONE-STOP TOTAL SOLUTION
태양광사업의 A to Z, 프로젝트 개발부터 EPC, O&M까지
접수문의: 담당자 02)3440-7842, jykang@dasco.kr